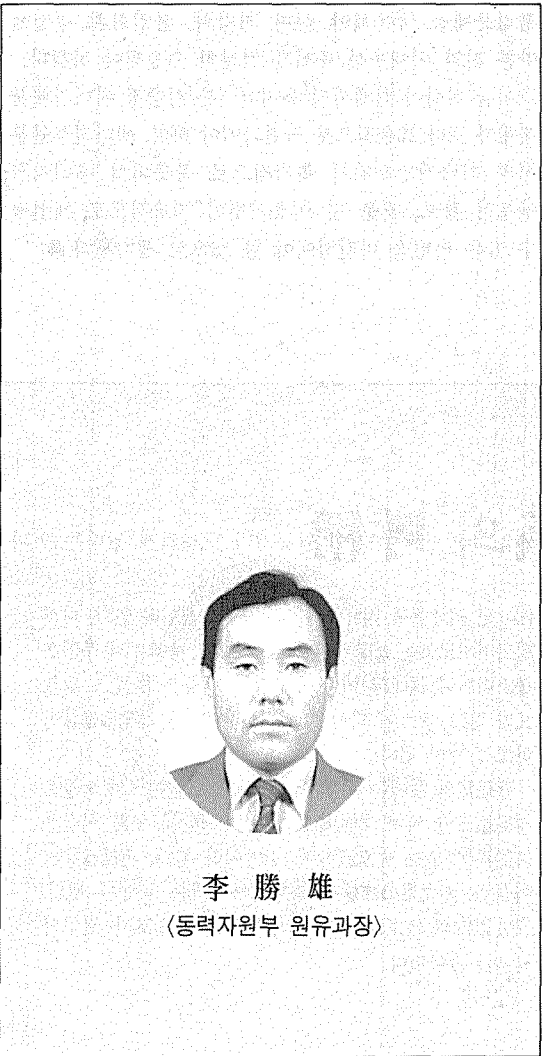


1. 中東사태가 우리나라의 원유도입에 미친 영향

지난 8월 1일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전면 침공하여 무력으로 쿠웨이트를 점령함에 따라 Jabir Al-Ahmad

中東사태와 원유의 장기안정 확보방안



李 勝 雄
(동력자원부 원유과장)

Al Sabab 쿠웨이트국왕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정치적 망명을 떠났다.

이 사태에 따라 국제 석유가격은 延日 상승하는 현상을 보여 지난 8월 23일에는 中東의 두바이油의 현물시장 가격이 배럴당 32달러까지 치솟아 사태전인 7월 31일 17.20달러보다 무려 14.80달러가 폭등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그리고 미국 및 영국산 석유가격도 9월 6일 33.36달러와 31.60달러로 각각 상승하여 지난 '86년 이후 처음으로 30달러 이상의 高油價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더우기 정상적인 가격구조로는 中東産 원유의 가격이 英國 및 美國産 원유에 비해 약 20% 정도의 가격격차가 있게 마련인데, 오히려 中東産 원유가격이 英國 및 美國産에 비해 높은 가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中東사태의 긴장상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그러면 中東사태가 우리나라 원유도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로 하자.

① 쿠웨이트사태로 인해 우리나라 원유도입에는 어느 정도의 차질이 발생하였는가?

우리나라가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 도입하던 물량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하루에 약 109천배럴이었으며, 이는 총 도입량 928천B/D의 11.8%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 중 장기계약에 의하여 도입되던 물량이 75천B/D였으며 나머지는 건설대전등 현물원유로 도입되던 물량이었다. 그런데 양국으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중단됨으로써 부족물량을 他 산유국으로 전환하여 도입하여야 하는 追加확보대책의 마련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② 부족한 원유는 어떻게 추가로 확보하였는가?

쿠웨이트사태로 부족하게 된 물량의 추가확보를 위하여 정부 및 민간정유사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52천B/D의 장기계약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므로써 사태전의 장기계약 509천B/D를 686천B/D로 끌어올렸다. 따라서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도입중단분인 109천B/D를 보충하고도 143천B/D의 순증량을 가져오게 된 셈이다.

추가 확보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멘·이집트등의 해외 개발유전의 지분유전(24.5천B/D)를 국내에 도입키로 하였으며, 기존 장기계약도입선이었던 오만, 말레이시아, 이란등으로부터 증량도입(72.5천B/D)케 되었다. 그리고 지난 '86년 7월부터 중단되었던 중동지역에서의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신규로 장기도입계약(155천B/D)을 개발하여 원유를 도입케 된 것은 무엇보다 큰 수확이었다고 하겠다.

③ 중동사태이후 원유는 얼마나 구매하였으며 또 구입 가격은 어느 수준이 되는가?

중동사태후 8월중 선적키로 되어 있던 국내원유도입 물량은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도입계획분 4,200천배럴을 제외하고는 총 11개국으로부터 21,825천배럴(704천B/D)을 당초 계획대로 모두 선적하여 국내도입물량 확보에는 큰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미선적분 4,200천배럴에 대해서는 이미 일부는 정부비축유 대여(1,300천배럴)로 충당하였고 나머지는 국내정유사의 재고로 대처할 계획이므로 9월중 국내도입예정물량의 확보나 정유공장의 가동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선적일자별 분포비율을 살펴보면 8월 하순에 전체물량의 64%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중동사태이후 국제현물가격이 폭등함으로써 원유의 구입시점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8월중 선적물량을 기준으로 국내도입예정가격을 추정해 보면 중동사태이후 각 산유국들의 자체 공식가격의 인상에 영향을 받아 배럴당 23.96달러로 추정됨으로써 8월 국내도입잠정단가인 14.46달러보다 배럴당 9.50달러가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2. 中東사태이후 산유국과 소비국의 동향

그러면 중동사태이후 산유국의 동향은 어떠하며 이에 대처하여 소비국들은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④ 中東사태이후 OPEC의 동향은 어떠한가?

지난 8월 26일 빈에서 OPEC 긴급 石油장관회의가 비공식으로 개최되었는데 이라크 및 리비아 2개국이 불참한 가운데 중동사태에 따른 산유국들의 공동대처전략을 논의하고 참석한 11개국의 石油장관중 이란의 반대로 10대1의 다수결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여 발표하였다.

주요 합의사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OPEC의 안정적 석유공급원칙을 재확인하고 생산여력국의 산유량을 증대시키기로 하였으며, 위기종료시에는 산유량 및 가격을 지난 7월 27일 OPEC총회시의 합의대로 환원하기로 가결하였다.

따라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베네수엘라, 이란등 증산여력이 있는 산유국들이 증산을 단행하게 되면 이라크 및 쿠웨이트로부터의 석유수출중단물량(약 4,000천B/D)에는 약간 미달되지만 약 3,600천B/D의 추가공급은 가능하리라고 기대된다.

그러나 추가 증산된 원유가 석유시장에 공급되는 시기는 약 1개월뒤인 9월말이 될 것이며, 10월부터는 석유 소비의 성수기인 월동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점과 산유국의 적체재고 약 150백만배럴이 거의 소비된다는 점이 맞물려 금년 4/4분기의 세계석유수급상황은 공급과 수요가 매우 팽팽한 균형을 이루게 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약 1백만B/D정도의 공급부족현상이 예상된다.

한편 가격측면에서도 사태의 초기 해결이나 전쟁발발 등의 새로운 진전이 발생하지 않고 현재의 긴장상태가 당분간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현재의 유가수준(25~30\$/B)에서 등락을 계속하게 되리라고 전망된다. 그러나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산유국의 가격정책도 지난 7월 27일의 OPEC 총회시에 기준유가를 18\$/B에서 21\$/B로 인상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유가의 급등보다는 점진적인 인상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다.

⑤ 中東사태이후 석유소비국들의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산유국의 기구인 OPEC에 대응한 소비국간의 협력기구는 '73년 석유위기를 배경으로 OECD이사회 결정에 따라 설립된 IEA(국제에너지기구)를 들 수 있다. 이 국제에너지기구는 美國, 英國 및 日本등 선진국 21개국이 가입하고 있으며 석유비축수준결정등의 긴급시 대책수립과 석유소비절약, 대체에너지개발등, 장기에너지협력대책등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상호 협력하고 있다.

IEA는 지난 8월 31일 집행이사회를 개최하고 10월까지의 공급부족은 산유국의 잉여생산 및 민간재고방출로 매꾸며 석유가격인상에 의한 소비감소로 대처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OPEC의 증산결정을 환영하면서 한편으로는 소비국들이 비정상적인 비축증가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IEA는 오늘의 상황이 에너지 효율성의 제고, 소비절약 및 대체에너지연구개발등이 장기에너지 안정 확보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IEA가 비회원국들과는 효과적인 에너지안정확보를 위하여 접촉을 확대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으면서도 산유국 기구인 OPEC와는 공식적인 회합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산유국과 소비국간의 직접적인 상호 협력체구축은 아직 요원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⑥ 향후 세계의 석유수급사정과 유가전망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보는가?

향후 세계의 석유수급사정이나 유가는 中東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하겠으며 또 한편으로는 석유시장상황도 中東사태 전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사태전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먼저 사태가 早期에 종결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년 4/4분기의 석유수급상황은 OPEC생산공급량을 23.5백만B/D로 보고 對OPEC수요 24.5백만B/D에서 부족분 1백만B/D는 재고활용으로 수급균

형을 이루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유가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겠지만 성수기인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강세를 보여 배럴당 20~25달러 수준(中東産 두바이 油種 기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두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사태가 膠着장기화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4/4분기 OPEC생산공급량이 다소 미흡하여 22.1백만B/D 정도를 나타낼 것이며 對OPEC 수요 24.5백만B/D에 비하여 부족한 2.4백만B/D는 재고 및 비축유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예상유가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민간재고로만 부족물량을 충당할 경우에는 배럴 27~32달러 수준을 나타낼 것이고 선진국들이 정부비축유를 방출할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23~28달러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번째의 시나리오는 이 사태가 전쟁발발로 이어지는 아주 비관적인 경우를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인 高油價사태가 발생할 것이며 심리적 불안요인이 유가의 폭등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석유수급상황을 정부비축유 방출로 물량부족분 2.4백만B/D 규모를 충당하게 되겠지만 가격은 배럴당 30~45달러로 폭등하리라고 예상된다.

이상의 세가지 시나리오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사태가 얼마나 지속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석유수급이나 가격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유국이나 소비국 모두가 공생 번영하기 위해서는 사태의 조기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다.

3. 中東사태와 우리나라의 원유장기안정 확보방안

그러면 中東사태에 따라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원유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지등에 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⑦ 원유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단기대응책은 무엇인가?

해외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중단되거나 물량부족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단기적대응수반으로서는 민간정유사의 재고활용방법과 정부비축유의 방출 및 소비감소등의 대책등이 있다.

국내 정유사의 재고와 수송중에 있는 물량을 합치면 9월 12일 현재 원유와 제품을 포함하여 약 55.8백만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외로부터의 원유도입이 일시에 중단될 경우에도 약 61일간을 지속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또한 정부비축유도 원유와 제품을 포함 약 40백만배럴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약 43일간을 지속할 수 있으며 정부비축유와 민간재고를 합치면 약 100일이상 지속할 수 있다. 따라서 물량부족이 50%가 발생하면 약 200일(약 7개월) 30%의 물량부족시에는 약 300일(약 10개월)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석유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정부비축시설을 1996년까지 추가 건설을 통하여 비축능력을 배가(시설용량 : 95백만배럴 규모)해 나갈 계획이다.

석유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내외 유전의 개발과 석유의 비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2차 석유위기이후 정부비축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은 그야말로 매우 값진 교훈이었으며 동시에 적절한

정책방향이었다고 하겠다.

⑧ 우리나라의 경우 石油을 全量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원유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향후 원유의 안정확보를 위한 시책방향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별로 적정도입수준을 유지하므로써 원유도입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즉 각 지역별 석유저장량의 분포비율을 근간으로 하여 지역별 특성과 세계석유수급변화에 단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원유도입의 최적모형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中東지역은 전세계 매장량의 62%, 자체생산량중 수출비율이 81.3%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對中東도입비중을 현재의 60%수준에서 70%수준까지 향후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아울러 中東지역을 주축으로 하되 도입선 다변화 시책을 꾸준히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東南亞지역은 전세계 매장량중 점유율이 4.9%에 불과하나 국내에 적합한 유종이라는 점과 수송거리(7~8일소요)의 이점

중동의 국가별 도입비중

(단위 : %)

	매장량비중	1980	1983	1986	1989	1990상반기
오만	0.4	-	3.7	12.1	22.4	22.7
아랍에미리트	9.7	-	9.3	12.4	16.3	17.6
이란	9.2	8.5	16.3	16.3	13.0	11.2
사우디아라비아	25.2	61.2	30.5	9.2	5.1	5.3
쿠웨이트	9.3	26.0	10.8	5.7	5.1	7.6
이라크	9.9	-	1.8	1.5	1.9	4.2
합계	63.7%	95.7	72.4	57.2	63.8	68.6

東南亞지역 도입비중

	매장량	1981	1983	1986	1989	1990상반기
말레이시아	0.3%	1.3%	4.9%	10.1%	9.1%	8.9%
인도네시아	0.9%	1.5%	4.5%	7.5%	4.2%	4.7%
브루나이	0.2%	-	4.2%	4.1%	4.3%	3.6%
中國	2.6%	-	-	-	2.7%	3.3%
기타	0.9%	-	-	0.5%	0.6%	0.4%
합계	4.9%	2.8%	13.6%	22.2%	20.9%	20.9%

美州, 아프리카 도입비중

	매 장 량	1981	1983	1986	1989	1990상반기
美 洲	13.4%	5.7%	6.1%	11.1%	1.3%	2.3%
아 프 리 카	6.1%	0.8%	6.2%	6.2%	5.1%	1.7%
計	19.5%	6.5%	12.3%	17.3%	6.4%	4.0%

등을 고려하여 현수준인 20% 내외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아시아지역이 신흥공업국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외유전개발 참여에 의한 생산지분의 확보방식으로 자주공급능력을 배양해 나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입방법면에서도 장기계약비중을 높혀 안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美州·아프리카지역은 원거리라는 점과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점이 있으나 전세계 지역량의 비중이 19.5%에 이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의 수송비 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각화 지원방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음으로 장기계약 우위의 도입형태로 안정공급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요즘은 가격측면에서 현물원유도입의 이점이 상당히 축소되었으므로 장기계약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므로써 원유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여왕벌」의식 강하면 따돌림 - 外誌가 권하는 「女性 직장생활 守則」

취업여성의 전반적인 증가추세와 함께 직업세계에 자신의 인생승부를 걸고 과감히 도전하는 여성들이 꽤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모델로 삼을만한 선배 여성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커리어우먼으로 발돋움하기까지 헤쳐나가야 할 상황들은 많다. 近着 外誌는 커리어우먼을 보장하는 회사 생활수칙 50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간추려 소개한다.

▲능력있는 여성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버려라. 항상 조언을 구하고 지도를 요청하라.

▲컴퓨터세계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만 집착하지 말라. 변화란 불가피한 것이니 유연하게 대처하여 배울 준비를 하자.

▲고조된 음성으로 말을 맺지 말라. 그런 어조는 당신을 자신없어 보이게 한다.

▲항상 성공을 기대하되 여러가지 난관도 함께 예상하라. 어려움이 생겨날 때 장애들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알아두자.

▲실수는 불가피하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단 그 실수로 부터 반드시 깨우침을 얻자.

▲여왕벌이 되려고 하지 말라. 당신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한들 주위로부터 소외되고 빛날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비판에 대해 마음을 열어두자. 타인의 비판을 신중히 고려한다는 평판을 얻게되면 당신은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될 것이다.

▲발표를 한다든가, 월급인상을 요청한다든가 하는 중요한 상황에서는 예행연습을 해두자. 발표에 집중하고 동작을 숙지하는등 마음속에 청사진을 만들어라.

▲직장생활에는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화동우회·웬스클럽등에 적극 참여하라. 많은 힘이 될 것이다.

▲새로운 개념에 수용적인 마음가짐을 가져라. 아이디어는 도깨비같은 것. 새로운 아이디어에 개방적일 때 좋은 아이디어는 마술처럼 생겨나 멋진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중앙일보)